

福祉社会建設과 病院의 機能및 役割

金正根

서울대학교 保健大学院院長

1. 福祉에 關해서

福祉(Welfare)는 快適好調의 狀態를 意味하는 Well-being과 同義語다. 現在의 用法으로서는 後者が 現實의 具體的인 生活의 映像을 映두에 두고 使用되고 있는데 비해 Welfare는 抽象的이고 總括的인 杼앙스가 涵축되어 있다. 또 現在와 같이 經濟優先的인 風潮에서는 富裕하고 繁昌하고 있다는 prosperity와 同義語가 될 수도 있다.

福祉와 医療는 서로 密接하게 關聯된 것이다. 福祉가 意味하는 것은 一般的으로는 社会福祉이고 내용적으로는 社会事業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社会的으로 福祉의 狀態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福祉의 狀態로 회복시키는 것, 혹은 社会的으로 福祉狀態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狀態로 되는 것을 防止하는 것이 社会福祉이다.

福祉란 用語는 「兒童福祉」라던가 「老人福祉」와 같이 使用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 경우福祉는 「幸福」, 「幸福한 生活」 또는 Satisfactory state (滿足한 狀態), health prosperity (健康과 繁榮) Wellbeing (安寧) 등과 같이 극히 一般的인 意味로 使用된다. 그러나 社会福祉

란 用語는 보통 老人의 福祉라던가 心身の 障礙가 있는 사람에 對한 福祉의 實現을 目的으로 하는 特定의 社会組織의 活動을 뜻하는 專門的用語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社会福祉研究는 制度·政策論的인 것과 技術이나 方法論的인 두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中에서도 制度的인 것에 位置되어 있는 감이 있다. 制度的인 側面에서의 研究를 보면 施設이나 設備가 完備 되어야 한다는 것에 力點이 주어지고 있다. 勿論 社会福祉에 있어서 施設과 物質的保障이 가장 基本的인 것이고 또 必要不可缺의 것이기도 하다. 障礙者(兒) 施設, 老人施設 혹은 患者를 위한 施設이 制度的으로 設置되고, 設備가 完備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그러나 現代的인 建物を 짓는 것이나 最新의 裝備를 갖추는 것에 못지 않게 重要的인 것이 處遇內容이다. 예로서 重症의 心身障礙者는 어차피 교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衣食住의 保障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무런 能力도 없을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 重症心身障礙도 相當한 可能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專門的知識技術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發達할 수 있도록 治療育成하는 것이 참된 福祉의 內容일 것이다.

福祉의 狀態에 있는가 아닌가는 社会内에서 的 相對的인 位置에 의해서 決定되는 性質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過去에는 衣食住만 解決되면 그 사람은 福祉의 狀態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 되었다. 그러나 失業率이 줄어들고 個人當所得이 높아져 모든 사람의 生活이 高級化되면서 福祉의 狀態도 相對的으로 高級化되었다. 健康해야하고 高等教育도 받아야 하고 좋은 環境에서 충분한 余暇도 즐길 수 있어야 福祉의 狀態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당초 恩惠의, 慈善의 動機에 의해서 救貧의 으로 실시되었던 福祉였다. 그러나 오늘날 衣食에 관한 問題는 거의 解決되었지만 現代의 人 意味에 있어서의 救貧의 福祉는 多樣化하는 生活의 여러가지 側面을 同時에 滿足 시켜야 하는 것이 되었다.

救貧의 福祉에서 一步前進한 福祉는 防貧의 福祉다. 이것은 医療에 있어서의 治療醫學 과 予防醫學과 같은 것이다. 防貧의 福祉는 福祉의 狀態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狀態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老齡이나 癱疾에 의한 勞動力의 喪失은 所得을 잃게한다. 이 경우엔 年金制度에 의해서 所得을 保障하는 것이 課題가 된다. 各種의 醫療保險이나 失業保險 혹은 勞働者災害補償保險등의 社会保險制度도 防貧의 所得保障에 包含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醫療는 福祉에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의 醫療가 再編成되고 社会的適應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社会福祉의 一翼을 담당하기에는 難點이 많다. 現在 우리나라의 醫學이나 醫療技術의 水準은 거의 西歐에 肉迫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런데 問題는 그것이 如何히 社会에 適應되는가 하는 醫療制度의 整備에 달려있다.

2. 醫療의 基盤은 病院에 있다

近代醫學은 病院의 醫學이라고 할수 있다. 이는 西歐의 近代市民社会에 있어서의 Hospi-

tal에서 發達되었다. 이 Hospital이란 原來 中世基督教会에 있어서 巡禮者를 위한 宿泊施設에서 發端된 것이다. 施行중에 病에 걸려 Hospital에 長期滯在하는 病者를 修女가 看護하게 되면서부터 醫療施設의 性格을 갖게 되었다.

즉 現在의 病院인 Hospital은 原來는 看護를 主로하는 患者의 收容施設이었다. 近世에 와서 Hospital의 經營은 教会에서 國家나 富裕한 商人의 손에 넘어가서 醫師도 勤務하게 된 것이다.

그 이전의 醫師는 徒弟制度的인 開業醫로서 王族, 貴族, 甲富들에게 奉仕하는 典醫의 性格이 強한 經驗的醫療를 하고 있었다. 醫師가 病院이라는 多數의 患者를 收容하는 施設에 登場하여 看護員의 看護와 연계를 가지면서 組織的인 醫療를 담당하면서 부터 科學的인 醫療의 發達을 보게된 것이다. 그리고 차츰 病院은 醫療의 場所인 동시에 醫師教育의 場所이고 臨床醫學研究의 場所가 된 것이다. 近代醫學이 病院의 醫學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이런 緣由에서이다.

우리나라는 李朝末期까지 漢方醫學에 의한 醫療가 中心이었다. 이 醫療의 特徵은 患者의 收容施設을 갖지않은 醫師가 單獨으로 患者를 治療하는 開業醫의 醫療였다. 開化後 西洋醫學이 導入되었는데 醫學技術 위주로 導入되었고 醫療를 實施하는 體制는 李朝時代의 開業醫體制가 踏襲되었다. 한편 開業醫가 醫院에 病床을 併設하여 病院에 類似한 施設의 形態를 갖는 소위 病院도 차츰 늘어났다. 이러한 病院의 特徵은 西歐의 病院처럼 醫師와 看護員이 連携해서 組織的인 醫療를 하는 것이 아니고 醫師가 單獨으로 또는 補助者의 助力으로 醫療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專門職으로서의 看護員이 存在하지 않았던 그당시에 醫師만의 노력으로 醫療가 發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施設이 病院이라는 一般的인 概念이 생겨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醫療法을 보면 「病院이라 함은 醫師가 醫療를 行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20人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라고 病院을 定義하고 있다. 그리고 醫療機關의 施設基準을 法으로 定하여 病院에 있어서의 醫師와 看護員을 비롯한 醫療人の 定員等 組織을 明示하여 病院이 組織的인 醫療를 할 수 있는 施設이 될 수 있도록 要求하고 있다.

西歐에 있어서 長足の 發展을 한 것은 醫療가 醫師單獨의 것에서 看護와 結付된 그리고 最近에 와서는 医用工學을 비롯한 온갖 專門人力과의 協業으로 이룩되는 病院醫療로 發展했기 때문이다. 美國의 경우 保健醫療産業人力은 急激히 增大하여 1978년에는 670萬 名을 헤아리게 되었는데 그 중 半以上이 病院에서 勤務하는 人力이다. 그 내역을 보면 專門醫療技術者가 醫師와 거의 同數이고 登錄看護員이 醫師數의 四倍를 上廻한다.

現在의 病院은 過去에 있어서의 感染性疾患을 위주로 하는 醫療體制에서 長期의 看病을 必要로 하는 慢性疾患이나 혹은 보다 複雜하고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疾患에 對處할 수 있는 醫療體制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醫師單獨의 醫療의 時代는 지나갔고 完備된 施設을 갖춘 病院에서 여러 醫療關聯職種の 協業으로 되는 醫療가 要求케 된 것이다.

3. 病院은 最高水準의 醫療를 提供하는 곳이다.

最近에 볼 수 있는 醫療技術과 醫療機器의 發展은 놀랄 정도다. 過去에는 診斷不可能했던 異常도 새로운 醫療機器를 使用하여 正確하게 診斷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過去에는 死刑宣告나 다름없는 疾病도 完治할 수 있게 되었다. 画像診斷機器, X線CT, 超音波診斷裝置, 血管造影術, 人工心肺 등의 發達は 많은 患者에게 福音을 전하게 되었다. 醫師에게도 高度의 技術을 驅使할 수 있는 能力과 綜合的인 判斷力을 갖추면 人命을 求한다는 本來의 使命을 다할 수 있는 機會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發達된 醫療機器는 大型의 것이 많고 精密한 電子技術에 뒷받침된 것이므로 하나 하나가 무척 高價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高額의 費用을 부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機器를 活用할 수 있는 人力을 갖춘 病院에서만 現代的인 醫療機器를 具備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公平하게 醫療技術의 進歩의 恩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福祉社會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富者도 가난한 사람도, 都市에 사는 사람도 農民도 누구나가 똑같은 高度의 醫療를 受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福祉政策의 窮極의 目的일 것이다. 高度로 發達된 醫療機器와 高級醫療人力을 고루 具備한 病院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고 또 그러한 病院이 地域적으로 고르게 分布한다면 醫療福祉의 本質로 보아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醫療技術과 醫療機器의 現代化는 病院의 施設投資를 엄청나게 끌어 올렸다. 그 結果는 醫療費의 急激한 昂騰이다. 醫療保險이 全國民에게 普及되어 있는 日本에서는 醫療財政에 對한 壓迫이 深化되어 있고 自由診療의 나라 美國에서는 病에 걸려도 病院에 갈 수 없는 中産層이 늘어나고 있다. 現在의 病院은 될 수 있는대로 水準 높은 醫療를 베풀 수 있도록 施設을 갖춰야 하고 醫療費抑制도 해야 하는 어려운 課題를 안고 있다.

良貨의 醫療를 廉價로 提供하는 것이 福祉社會에 있어서 病院의 機能이고 役割이다. 또 病院은 醫學教育의 場의 役割도 하고 醫療技術開發의 研究機能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相當數의 우리나라 病院은 急速한 技術革新에 뒤따르지 못하고 時代적으로 落後된 施設이 많다. 費用增大는 病院經營에 壓迫을 주고 있는데 이에 對處하기 위한 하나의 例로서 美國의 病院經營會社「Hospital Cooperation of America」를 들 수 있다.

病院經營會社는 經營管理部門을 連鎖化하여 集積에 의한 效率化를 圖謀하고 一般經濟界에서 資金을 調達하여 大規模의 財政力을 背景으

로 病院의 現代化를 促進하기 위해서 設立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費用抑制效果에 있어서나 医療의 質에 있어서나 커다란 成果를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容易하게 한 美國의 病院시스템에도 배울 點이 많다. 美國에서는 醫師는 自己의 醫院을 갖고 그 곳에서는 外來患者만 보고 入院이 필요할 때는 契約한 病院에 入院시켜 그 病院의 施設과 機器를 利用한다는 開放시스템이 普及되어 있다.

病院은 醫師에게 治療하는 場所와 必要한 設備과 人力을 提供한다. 예로서 手術을 할경우 醫師는 手術費用등의 技術料를 받고 病院은 施設과 機器의 使用料, 看護料, 檢査料, 食事料 등 소위 入院費를 받는다. 提供되는 醫療은 醫師에게 이에 附隨되는 것은 病院에게 맡기는 分離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點은 없을까.

4. 病院은 地域住民의 健康管理을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最近에 볼 수 있는 醫療에 對한 關心은 대단하다. 衣食住가 어느 程度 解決되어 生活水準이 높아진 덕분이다. 健康하고 또 長壽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人間이 地球上에 出現할때 부터의 希求이고 이를 위해서 醫療가 있고 病院이 存在하는 것이다. 그리고 地域住民의 健康을 지키는 것이 福祉社會에 있어서의 病院의 基本的인 任務인 것이다.

醫療가 普及되면서 우리나라의 平均壽命도 急伸長하였다. 이와 併行해서 疾病構造도 大變遷을 이루었다. 過去의 短期的인 疾病은 줄어들고 高價의 醫療費를 要하는 慢性疾病이 前面에 進出해왔다. 癌, 腦血管疾患, 心臟病, 糖尿病, 肝臟病등 長期間의 治療를 要하는 疾病으로 醫療의 主役이 代替되었다.

早期에 発見해서 早期에 治療하지 않으면 쉽게 治療되기 힘든 疾病의 大舉出現은 醫療에 根源의인 發想轉換을 必要케 하고 있는 것이다. 醫療의 中心이 治療에서 予防으로의 轉位가 不

可避한 時代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病院에 있어서의 予防活動은 健康診斷에서 始作된다. 健康診斷은 外見上 健康한 사람에게서 異常을 早期에 発見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高度의 技術集積과 診斷, 檢査機器를 要한다. 健康診斷은 定期的으로 모든 地域住民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集團選別檢診을 하여 異常이 発見되면 精密檢査를 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歐美나 日本에서는 이를 위해서 病院에 健康管理部를 設置하고 있는 病院이 많다.

健康管理部는 對象住民의 健康記錄簿를 備置하여 個個人의 健康狀況을 分析하여 適切한 對策을 세우고 個人指導와 健康相談에도 응한다. 그리고 病歷情報등 健康管理에 必要한 保健情報의 센터 役割도 兼한다. 病院에 保管된 個個人의 健康情報는 他病院이나 醫療機關과 on-line으로 連結된 情報net-work를 통해서 수시로 必要한 곳에 供給된다.

病院을 中心으로한 이와같은 組織의인 地域 醫療는 潜在的인 疾病의 減少, 死亡率의 低下, 重症患者의 減少, 그리고 醫療費의 減少로 이어진다.

病院이라 하면 發病後의 患者를 治療하는 곳이고 予防이란 公衆保健에서만 한다는 그릇된 概念이 보편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醫療界에서는 病院의 予防活動이란 쉽게 定着하기 힘든 性質의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病院의 기능과 役割중 가장 중요한 것은 住民의 健康守護에 있고 予防과 健診에 의한 疾病의 早期発見은 끝없이 增大를 계속하는 우리나라의 醫療費問題도 解決해줄 수 있는 것이다. 醫師가 單純한 技術者가 아닌 것처럼 病院도 單純히 患者만을 治療하는 곳은 결코 아닐 것이다.

26 면에서

着眼하여 앞으로의 醫療法은 醫療에 의한 對國民奉仕에 유의하면서 醫療의 保護育成을 통한 그 自立發展에 力點을 두어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